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16: 출처 이론 및 공관복음 문제; 요한 복음 소개

Ted Hildebrandt 박사의 글

A. 소스 비판과 원 소스 이론 [00:00-3:15]

A: AC 결합; 00:00-9:55; 복음서 출처 및 형식 비판

지난번에 우리는 세리와 바리새인, 끈기 있는 과부와 함께 기도하는 루가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공관복음 문제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의 유사점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요한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의 92%는 고유한 자료인 반면, 마가복음은 7%만이 고유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의 문제 중 일부, 순서가 다른 곳, 표현이 다른 곳,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의 문제라고 불리는 갈등 중 일부를 논의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공관복음서의 역사로 넘어가서 그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글썬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출처 비평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출처 비평은 기록된 문서에서 작업하는데, 작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 문서에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출처 비평가들은 늦었고, 아마도 19세기, 2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구약성경에서 JEDP 이론을 강의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수업에서 JEDP 이론을 반박하면서 JEDP 이론의 주요 문제점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18 세기에 율리우스 벨하우젠 이 개발했고 , 지금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가르치고 있지만, 가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이 가르치지 않는지만, 대학의 많은 비평가들이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출처 이론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JEDP 이론은 모세가 오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이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출처를 살펴보고, 그래서 원 소스 이론이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출처가 있었고, 그것은 Ur- Evangelium , 즉 초기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세 저자가 모두 사용했고, 세 개의 공관복음서 모두 이 Ur-Evangelium, 즉 초기 출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가 왜 그렇게 비슷할까요? 그들이 모두 이 초기 복음서 기록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초기 기록이었고, 그들, 세 사람 모두 글을 쓸 때 그것을 빌렸고, 그래서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 소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출처 이론은 유사점을 설명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어떻게 유사한지 설명하지만, 차이점, 즉 마태가 마가와 다른 이유나 마태가 누가와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출처 이론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B. 출처 비판: 두 출처와 네 출처 이론 [3:15-6:49]

이것이 두 출처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두 출처 이론은 마가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가 먼저 나왔고, 왜 유사점이 있을까요? 마가는 마태가 사용했고, 마가는 누가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출처를 사용했다고 말할까요? 누가는 누가복음 1:1-4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가 목격자들과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거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2MJ]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기원후 50년대 이후에야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20년 동안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역사적 연구를 했고, 그가 확인했을 수 있는 문서 중 하나는 마가이고, 누가는 마가를 사용했고 마태는 마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태가 마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마태는 열두 제자 중 한 명이고, 예수님이 강의하고 대화하고 담화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마가를 노예처럼 따라하는 방식으로 마가에게 의존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태가 직접 목격자로서 그 사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는 실제로 거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마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 사이에서 흥미로운 춤을 추어야

합니다.

이제 두 출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Q 문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Q 또는 *Quelle*, *Quelle*은 기본적으로 "출처"를 의미합니다. 독일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출처 문서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을 공유할 때입니다. 제가 올린 표를 기억하신다면, 마태와 누가가 함께 공유한 약 170개의 세그먼트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찾은 170개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찾을 수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를 위한 특별한 공유 출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출처 이론이라고 부르고 Q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Q에 대해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Q입니다. Q는 마태와 누가가 공유한 것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Q 출처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것이 두 출처 이론이고, 두 출처 이론이 있다면 여기에 네 번째 출처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출처 이론은 여기에 우르-마태가 있다고 말하고, 우르-마태는 마태에게만 고유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우르-루크는 루크에게만 고유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루크에게만 고유한 부분이 약 500개 있습니다. Q는 여전히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와 루크에서 발견되지만 마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 Q 출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Q는 여전히 역할을 하지만, 마태는 그의 고유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루크는 그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 가지 출처 이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950-60년대에 이 이론을 믿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4 가지 출처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은 지금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Q를 언급할 것입니다. Q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Ur-Matthew, Ur-Luke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출처 이론이라고 합니다. 출처 이론은 기본적으로 마가, 마태, 누가가 사용한 초기 출처가 있다고 말합니다. Q와 그런 것들이 실제 기록된 출처였습니다.

C. 형식 비판과 구전 전통 [6:49-9:55]

형식 비판은 Gunke1과 함께 들어왔고, 중세 중반에 형식 비판은 거의 표절적인 의미에서 문서 간의 문서를 노예처럼 베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문서에서 베끼는 것입니다. 형식 비평가들은 정보의 구전 전달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물의 구전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구전으로 일어나면 구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구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 그들은 구전 전통과 문서에 대해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 예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 음유시인들이 말했듯이, 이 음유시인들은 1,200줄 길이의 노래를 암기합니다. 이 긴 시, 이 전설, 이 신화들을 그들은 암기하고

, 그런 다음 이 음유시인들은 술집에서 술집으로 가서 나라의 역사나 전설, 신화를 서술하는 이 긴 시를 녹음하고 낭송합니다. 그래서 구전 전통은 정말 큼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구전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집트 역사로 돌아가더라도 이집트의 글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이집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아이들이 글을 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글을 배우면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어두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과 구전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글로 쓰여진 것과 구전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형식 비평가들은 구전과 구전 전설, 기본적으로 구전 전설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해 더 많이 다루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장르, 다른 유형의 문학으로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내용을 다룰 때는 청중을 위해 구전으로 상황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옛날 옛적에"라고 말하면, 당신은 즉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죠? 일종의 우화, 동화 같은 이야기죠.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그래서 옛날 옛적에 그런 종류의 것들이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장르가 다르고, 구전으로 만들어진 문학의 유형도 다릅니다. 그 중 하나는 선언 이야기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 처한 예수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위선자들아” 그리고 예수는 떠납니다.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도다.” 그러면 잔의 겉만 깨끗이 하더라도 안이 더럽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이 선언 이야기들은 이런 종류의 것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 장르: 기적, 이야기, 우화 [9:55-12:42]

B: DF **결합**; 9:55-17:41; **구두에서 서면으로 전환**

예수의 기적 이야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적 기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치료적 기적입니다. 치료적 기적은 손이 마른 사람이 있을 때 예수가 손을 고쳐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손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료적 기적입니다. 또 다른 치료적 기적은 일찍 예수가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고열이 났습니다. 예수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을 고쳐 주셨습니다. 출혈하는 여자가 있는데 예수가 그녀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치료적 기적입니다. 비치료적 기적은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고치지 않았지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치료적 기적이며 예수가 그런 일을 합니다. 예수가 배 위로 나가서 “잠잠하라, 파도야”라고 말씀하시고 바람이 그에게 복종하여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그것 역시 치료적인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변형과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하려고 했을 뿐인데, 예수가 “일꾼은 그의 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예수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예수가 지혜로운 말씀으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수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난 이야기는 예수가 군인들에게 맞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특별한 이야기들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유가 있고,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리면, “천국은 비유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비유를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나 진짜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오래된 식물이 되고, 새들이 공중으로 날아와 가지에 깃들고,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게 되고, 천국은 비유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비유에 대한 신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형식 비평에서 특징지어지는 이 구두를 연습니다. 형식 비평의 구두성은 출처 비평과 대조적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출처 비평은 더 많은 서면 문서와 제자들이 베끼는 것이었습니다.

마. 교회가 기록된 자료로 전환한 이유: 사도들의 죽음 [12:42-15:20]

그렇다면 제자들은 구전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그 구전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자신이 무엇을 썼을까요? 예수가 쓴 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는 소크라테스와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것을 기록한 것은 그의 제자 플라톤이었고, 소크라테스의 문제라고 불리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플라톤이 쓴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소크라테스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원했던 것을 소크라테스의 입에 다시 넣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어떻게 구분하니까? 하지만 여기 예수와 함께 구전, 기록된 제자들은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들을 듣고 이 이야기들을 구전으로 전수하고 그들이 아는 것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항상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교회에서 구전 이야기에서 기록 형태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 일까요? 구전과 기록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떠오르고, 아마 더 있을 테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글을 쓰고 싶어했던 이유는 사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 있는 한, 사도들은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물을 확인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도들의 죽음이 그것을 촉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복음서를 쓰게 만들었을까요? 사도들이 죽었을 때, 당시 예수가 죽어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이 그것을 기록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한 큰 촉진 요인이 될 것입니다. 구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구전의 멋진 점은 그것을 만들 수 있고 구전으로 서면보다 훨씬 더 청중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전의

문제점은 당신이 그것을 말하면 비디오 카메라가 없다면 사라지고, 당신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존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전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하면, 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들이 나갈 때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거나 머릿속에 있지 않아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죽음의 결과로 구전에서 서면으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F. 교회가 서면으로 전환한 이유: 이단과 조직 [15:20-17:41]

또 다른 기록의 필요성은 이단자들이 초기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어 수업에서 요한 1서를 읽고 있는데, 요한 1서에는 이런 중단론자들이 나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큰 긴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증오심을 나타내고 있고, 요한은 그들에게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은 신자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그들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방법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 초기에 떨어져 나가는 이런 중단론자들 에 대항하여 , 반드시 1 세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원시 영지주의일 수도 있지만, 2 세기에는 확실히 영지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사물에 대한 매우, 매우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문서가 필요했고, “아니요, 아니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런 거였어요.”라고 말하려는 이단자들과는 대조적으로요.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 이단이 부상하면서 기록된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는 조직이 꼭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작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집에 작은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명 이상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일종의 조직 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로가 필요할 것이고, 집사가 필요할 것이고, 재정을 처리할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전도사로서 나갈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조를 갖추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도록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글이나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기록해 두어야 조직 측면에서 기독교에 일종의 균일성이 있어야 했고,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죽음,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것, 교회 내에 조직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G. 공관복음서의 차이점 설명: 인용문, 두 번 인용, 번역 [Q TTWPP] [17:41-21:07]

C: GH 결합; 17:41-24:44; 시놉틱 “해결책”

이제 이것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공관복음서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그리고 저는 Q-TTWPP를 사용했거나, 제가 약간 더듬거리지만, Q- twip 이나 Q-tip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두문자어인데, 우리가 빠르게 살펴볼 여섯 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들 중 일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차이점이 있을 때, 때때로 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있는 칭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인용문은 인용 부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종종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그리스어로 얻는 것은 어차피 그가 말씀한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요약이고, 이것들은 초록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2시간 분량의 설교를 전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0분 정도 걸렸을 법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약이고, 초록입니다. 마치 친구를 인용하고 "야, 조니가 얼마 전 제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정확한 단어를 말하지 않고 요약만 합니다. 그러니 인용할 때는 조심하세요. 단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일들을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환경에서 같은 설교를 하셨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예수께서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다른 청중에게 가르침을 주셨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한 작가가 이 출처를 인용하고 다른 작가가 저 출처를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들은 다르지만, 그것들은 같은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고,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셨을 때, 아마도 여러 번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더 일찍 언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뉴먼 박사는 기본적으로 성전 정화가 요한은 일찍, 마태, 마가, 누가는 늦게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정화 자체가 두 번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예수께서 일찍, 늦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여러 번 하셨을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번역, 우리는 예수께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말씀하셨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람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아람어는 기원전 586년에 그들이 바빌로니아로 갔을 때의 언어였고,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고 다니엘이 그 전에 갔습니다. 그들이 바빌로니아로 갔을 때 그들은 아람어를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가나안 방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가나안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브라함과 가족이 가나안에 왔을 때 습득한 가나안 방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로

이주하여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아람어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처럼 히브리어의 자매 언어입니다. 그들은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지만,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이 점령했고, 로마인들이 점령했을 때 그들은 일종의 보편적인 언어로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라틴어가 교회에서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1000년 이상 라틴어 불가타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우리의 신약성서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제 말씀은 번역되어야 했습니다.

H. 공관복음서의 차이점 설명: 증인, 목적, 부분/전체 [21:07-24:44]

목격자. 다른 목격자는 다른 것을 말하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 바로 옆에 있었고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다른 사람은 테이블 건너편에 있었고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있는 젊은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거기서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나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는 전신주 근처에서 버스에 치인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다른 목격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농구 경기에서 두 명의 다른 심판이 파울을 다르게 선언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관점에서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격자, 다른 이야기, 다른 관점.

목적. 이제 목적은 중요하고, 저는, 이걸 명확히 밝히고 싶은데, 목적을 가지고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제시하고 싶어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정말 중요하고 그가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 작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청중을 바라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작가는 청중을 위해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청중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청중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과 청중에게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가와 청중 사이에서 이런 춤이 일어납니다.

마태는 유대인에게 편지를 쓸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여기저기서 인용할 것입니다. 마가는 로마인에게 편지를 쓸 것이기 때문에 마가는 이방인 맥락에서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는 구약을 인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태만큼 의미 있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용할 것입니다. 마가는 로마에 맞는 군종과 소음으로 다른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의사이고 과부와 외동아이들을 데려와 특정한 방식으로 질병을 설명합니다. 그는 가장 훌륭한 데오필로를 위한 청중을 위해 사물을 집어냅니다. 그는 정부 관리인 듯한 사람을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건이나 무언가에 대해

쓰려고 하며 그런 식으로 사물을 기울일 것입니다. 요한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자와 독자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와 독자,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분/전체,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한 명뿐이었나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서는 더 완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매우 압축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가는 종종 매우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이야기들은 마태와 누가에 의해 전개되고, 부분/전체 유형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Q-TTWPP이고, 이것들은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르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공관복음 문제입니다. 이제 요한은 우리가 말했듯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공관복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관복음 문제를 연구하는 데 평생을 보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각자의 이야기를 다르게 전하는 방식의 유사점, 차이점, 그리고 모든 뉘앙스를 연구합니다. 그 공관복음 학자들 중 일부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예수를 연구했고, 다렐 보크와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신학교와

다른 곳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I. 요한복음 서론 [24:44-28:09]

D: IM 결합; 24:44-39:09; 요한의 유대성

이제 제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내리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말했듯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92%는 고유한 자료입니다. 92%가 중복됩니다. 8%만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은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천국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종, 놀라운 고난받는 종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전과 모든 고유한 비유와 기도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논쟁을 벌이거나 무언가를 논의한 적이 있다면, 예수를 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신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아니며, 그들은 거기서 실제로 구별을 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로고스]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신이셨다"고 그들이 신세계역에 쓴 것처럼, 불행히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제가 종종 말했듯이, 제가 만난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어를 모른다고 합니다. 솔직히 물어보면요. 저는 그들에게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을 읽을 수 없었는데, 그리스어를 읽을 수 없는 그들의 지도자들도 포함해서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 그리스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임을 보여주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가복음 1:1로 돌아가 보면, 말라기서에서 마가복음 1:1이 실제로 예수가 여호와 신임을 보여준다는 인용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신으로 묘사되는 곳은 바로 요한입니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고든 칼리지에 스티브 헌트 박사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는 요한서를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는 요한서의 진정한 전문가이지만 요한이 요한서를 썼다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는 라자로나 다른 사람이 요한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토론을 계속합니다. 저는 그의 전문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는 전문가이고 저는 옆에서 짚는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을 살펴보고 싶지만 요한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요한서의 특징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서의 특징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에 따르면"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원래 사본에는 없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썼다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나,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고, 우리는 그 요한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장로 요한인가, 아니면 사도 요한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J. 요한의 유대성: 종교적 신념과 하누카 [28:09-32:08]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든,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든 매우 유대인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든 매우 유대인이고, 이 책의 유대성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유대인의 믿음은 사마리아인과 대조됩니다. 4장에서 예수께서 우물가에 있는 여자에게 내려가셨는데, 유대인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이셨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4장 9절에서 사마리아인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인 여자입니다.” 두 가지 모두 사마리아인과 여자로 간주됩니다. “저는 사마리아인 여자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 다음 괄호 안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은 주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 여자가 말했습니다. “

우리는 이 산[저기 있는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그 장소라고 말하고, 우리는 여기 그리심에서 경배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이 유대인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우 예민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여러분은 게리심 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적 풍미를 얻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축제, 축제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하누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초막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초막절은 그들이 나가서 일주일 동안 오두막에서 살 때이고, 보통 가을인 9월이에요. 그들은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광야 방황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것은--저는 그것을 유대인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7장 2절과 37절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행하는 이적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 그의 친형들조차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지체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초막절을 이어받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그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기적을 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초막절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더욱 두드러진 것은 요한복음만이 이 하누카 축제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10장 22절에서 “그러자 헌신의 축제가 왔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빛의 축제”로 번역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촛불을 켜고 하누카, 예루살렘의 헌신의 축제는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누카가 온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행복한 하누카를 말한다면, 하누카는 언제입니까? 하누카는 우리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날인 12월 25 일 바로 옆입니다 . 하누카는 보통 그보다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하누카 축제는 하누카 축제, 헌신의 축제를 언급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매우 유대적입니다. 하누카 축제는 구약성서에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카비 시대를 연구했을 때 보았듯이, 하누카 축제는 유다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성전을 정화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기원전 165 년 무렵과 마카비, 유다 마카비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누카 축제는 구약성서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반대하는 매우 유대적이기 때문에 매우 유대적입니다.

K. 요한의 유대성: 결혼식과 장례식 [32:08-36:58]

문화에 대해 무엇을 말하시나요? 언제 문화를 실제로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중에 "My Big Fat Greek Wedding"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결혼식에서 결혼식을 통해 문화에 대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에 대해 알고 싶다면 "My Big Fat Greek Wedding"을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그리스 문화, 미국의 현대 그리스 문화에 대한 엄청난 설명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와서 "와인이 없어요. 잔치가 끝나가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뭔가 하실래요?"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요? 예수께서 '이 돌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160갤런이 들어갔고,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일부를 주지사나 결혼식 감독관에게 가져가서, 그는 "이게 오늘 밤 우리가 마신 가장 좋은 와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장 좋은 와인을 먼저 주고, 사람들이 잘 마셨을 때, 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나쁜 와인을 주지만, 그들은 약간 취해 있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남겨 두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모든 유대인 결혼식 이야기를 듣고, 요한은 요한의 책에서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과 죽음은 요한이 강조하는 또 다른 장소,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방금 11장에서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읽겠습니다. “주님,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돌을 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마르다는 여기서 약간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나쁜 냄새가 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거기에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날 미국에서보다 죽은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의사가 시체를 가져가 관에 넣고 땅에 묻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죽어가는 전체 과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그가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으니 돌을 굴리기에 좋은 시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사흘 동안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나쁜 냄새가 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들은 돌을 치웠고,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나오라’고 부르셨다.” 죽은 사람이 나왔고, 그런 다음 이런 묘사가 나온다 : “죽은 사람이 나왔다. 그의 손과 발은 아마포로 싸여 있었다.”

^^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이런 작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어떻게 물을까요. 유대인은 깨끗하고 더럽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물을 때는 유대인적 배경을 감안할 때 깨끗하고 더럽지

얇은 것에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그의 손과 발은 아마포로 싸였고, 얼굴은 천으로 감쌌어요. 수다 리움이라는 게 매우 흥미롭죠. 나사로의 얼굴에 천이 싸여 있어요. 이게 그의 얼굴을 덮은 천이었어요. 요한은 이 책에서 11장 44절에서 죽은 사람 위에 이 얼굴 천이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은 싸였고 발은 아마포로 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 천으로 싸였고 수다리움 같은 것도 있었지만 매우 흥미롭죠.

20장에서 예수님이, 사실 헛트 박사가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했습니다. 20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피자 파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이 모든 향신료를 바르고 그를 무덤에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양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수다리움을 놓았습니다. 이 정확한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드문 단어인데, 이 수다리움은 예수님 위에 얹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경우 얼굴 수건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있고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 수다리움은 옆으로 놓았습니다. 린넨이 여기에 있었고 수다리움은 저기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가는 유대 문화 관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설명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은 책의 유대성을 보여줍니다.

M. 요한의 유대성: 성전 정화와 만나 [36:58-39:09]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는 뒤집어지고, 쫓아내고, 비둘기를 돌보고, 성전에서 자신의 몸의 성전을 향해 “내가 이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내 말은 영이고 내 말은 생명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유주의 신학과 정치에 대한 글을 많이 읽었고, 신에 대한 글에 빠져들었지만,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바라보는 이 모든 훌륭한 철학적 방법들은 지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성경 자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고민하던 어느 여름 집에 갔는데, 성경이 저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새로운 관점과 신과 예수에 대한 더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폴 하우스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는 그랜드 아일랜드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쳤고, 그는 매우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그랜드 아일랜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에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지식인, 그랜드 아일랜드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놀라운

선생님이었습니다. 폴 하우스의 수업은 그들에게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기독교인이었고, 제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읽고 돌아왔을 때, 그는 저에게 이 구절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테드.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폴 하우스는 저를 다시 길로 인도했고, 그것은 저희의 토론에서 저에게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나온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생명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북 팔레스타인의 영향: 팔레스타인의 지형 인식 [39:09-42:17]

E: NR 결합; 39:09-52:29; 팔레스타인 및 목격자 지표

이제 존이라는 인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사람 *자체* 에, 책을 쓴 사람에 대해 그렇게 집중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였든, 저는 존이라고 생각하고, 헌트 박사는 라자루스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였든, 여기에는 팔레스타인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형적 인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랜드 아일랜드의 베이스라인 로드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랜드 아일랜드에서 자랐고, 그곳이 제 고향이기 때문에 윌러스 드라이브, 러브 로드, 베이스라인 로드, 랜섬 로드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도로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도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이라면, 이 장소들을 걸어서 갔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을 통해 예리한 지형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1장 28절에 “이 모든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적어도 베다니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올리브 산에 한 개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기 프로그램에 갔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언어가 있는 예배당이 있는 파테르 노스테르 나 우리 아버지 기도를 하러 갔을 때요. 올리브 산의 바로 동쪽에 있고, 바로 그 근처에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올리브 산의 뒤쪽에 있었고, 베다니를 지나 올리브 산을 지나 성전 산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올리브 산 꼭대기에서 키드론 계곡 너머 성전 산 지역의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웠고, 산등성이 바로 너머, 기본적으로 사막에 더 많이 있었지만,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베다니라고 할 때 베다니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똑같은 것이고, 제가 워소라고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워소라고 말하면요. 이곳은 보스턴 외곽 웬햄에 있는 고든 칼리지입니다. 보스턴 북쪽 해안에 있습니다. 제가 워소라고 말하면, 이 방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제가 워소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다음에 무슨 단어를 떠올릴까요? 여러분은 폴란드 워소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워소가 폴란드의 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폴란드 워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디애나 워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워소 지역의 인디애나 위노나 레이크라는 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디애나 워소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소라고 말할 거라면, 그것이 인디애나 워소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폴란드 워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베다니가 두 명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들에게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20, 30, 40마일 떨어진 곳이죠.

0. 팔레스타인의 영향: 베데스다와 성전 [42:17-45:20]

그래서, 누가 그 책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지형에 대한 예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절에 있는데, 못가에 누워 있던 절름발이가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물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물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글썬요, 그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지만 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구가 되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양문 근처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양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양문은

사자문이라고 불립니다. Get Lost Jerusalem 프로그램에 가면 사자문으로 가는데, 사실 양문이고, 양을 데리고 온 곳입니다. 양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양을 데리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문 근처에는 "아람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웅덩이가 있었는데, 5개의 덮인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5개의 덮인 기둥으로.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 베데스다 웅덩이와 거기에 있는 5개의 덮인 기둥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베데스다 웅덩이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세인트 앤 교회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자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약 50 야드 들어가면 세인트 앤 교회에 도착하고 여기가 베데스다 웅덩이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 5개의 덮인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설명한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그들은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정보로 가득 찬 흥미로운 확인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우리는 정확히 이 5개의 색깔 있는 기둥을 여기에서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둥의 바닥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자세한 설명입니다. 제가 자란 윌리스 드라이브를 설명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제 고향이고, 제가 자란 곳이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예수님은 판을 뒤집어 놓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잠깐만요. 헤롯이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 걸렸어요.”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 걸렸다는 걸 아는 건 팔레스타인 사람이거나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마치 보스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Big Dig라고 말했는데, 보스턴에서 Big Dig는 계속되었고, 사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Big Dig는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10억 달러에서 시작해 150억 달러가 넘었고, 계속 늘어나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Big Dig라는 프로젝트를 짜내려고 했던 것처럼요. 거기에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의 Big Dig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성전이 지어진 지 46년이 흘렀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다시 말해서 그것은 팔레스타인식 틀을 보여줍니다.

P. 목격자 증언: “우리”의 사용과 말고 의 귀 [45:20-47:32]

이제, 그것이 목격자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축제를 묘사하는 방식에서 말입니다. 이 책을 묘사한 사람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매우,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형을 매우, 매우 잘 알고 있으며 두 베다니와 사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쓴 사람은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단도직입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저자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저자는 “나는 이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보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리고 누가 “저는 목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저는 목격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저는 목격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른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고려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이 저자, 요한복음에서 여기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이 저자가 실제로 목격자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종류의 작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겻세마네 동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번 기도하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시고 제자들이 잠들자 다시 나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십니다. 마침내 그는 제자들을 잠들게 하시고 예수께서 세 번째로 나가십니다. 그런 다음 유다가 군중과 함께 나오고 베드로가 칼을 차고 마초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칼을 꺼내 그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글썄요, 다른 저자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의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말고 의 머리 에 귀를 다시 꿸고 고쳐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칼을 거두어라. 칼로 사는 자는 칼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칼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여기 당신의 귀를 다시 꽂고 말고 의 머리에 다시 꽂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 였고, 그것은 목격자의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곳에 있었고,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말고 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목격자의 표징입니다.

Q. 목격자 증언: 153마리의 물고기와 정확한 시간 [47:32-49:48]

더욱 놀라운 것은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중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남북 전쟁 때 “레인 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떨어뜨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쑤시개였습니다. 그들은 이쑤시개를 여러 개 떨어뜨렸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 남자는 땅에 이쑤시개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해안에 있는 사람이 “야, 뭐 잡았어?”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 우리는 밤새도록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을 반대편에 던지세요.”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고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이빙을 하고 해안으로 헤엄쳐 갔고, 더 책임감 있는 다른 사람이 물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어 본 물고기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고 부활 후에 나온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강박관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누가 정확히 물고기의 수를 세었을까요? 누가 그럴까요? 제 말은, 저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고기를 백 마리, 수백 마리,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제가 존이 그 책을 썼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존은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이 잡은 정확한 물고기의 수를 아는 것이 어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세어보고, 153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목격자의 표시입니다. 아무도 그런 종류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목격자이고, 그래서 당신은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습니다.

이 작가는 누구이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정확한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는 이것이 제3시, 제6시, 제9 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태양이 뜬 후, 태양이 나올 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9시, 제6시는 정오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이 나열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목격자의 표시입니다.

R. 목격자 확인 [49:48-52:29]

이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들은 명확한 진술이고, 저는 이것들 중 일부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이 사람이 목격자였음을 확인하는 명확한 진술입니다. 19장 35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였고 그의 증거는 참되다." 그는 자신에 대해 3인칭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이 사람에 대해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였고 그의 증거는 참되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이 믿도록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여러분이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 있었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19장 35절.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1장 24절입니다. "이 제자는 이 일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살아 있게 하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게 하려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그를 살아 있게 하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게 하려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는 이 일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3인칭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는 어떻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꽤 친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형에 참석했습니다. 그 셋은 친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교회 초기에 죽임을 당했고, 야고보는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 중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테반은 더 일찍 순교했지만, 야고보는 아주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친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친밀해서 "이 사람은 어때요?"라고 묻고, 그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요, 아니요, 예수께서 '내가 그를 살려두고 싶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과 매우 상반됩니다. 누가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목격자가 아니지만 목격자들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친밀함 [52:29-54:57]

F: SV를 합치다; 52:29-64:15; 그리스도와 베드로와의 친밀함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리스도와 특히 가깝습니다. 특별한 친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 책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있는 제자 중 누구라도, 즉 안드레, 도마, 베드로는 이름이 있으므로 이들은 이 책의 저자일 수 없습니다. 사실 나사로도 이름이 있는데, 흥미롭지만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을 어떻게 지칭할까요? 그의 자기 명칭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하에서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그는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를 보고 주님께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 사이의 이 대화에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구절은 이 제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제자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밝힙니다. 그것은 자신을 밝히는 엄청난 방법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계로 자신을 밝힙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한때 위대한 정통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는 로마서에 대한 책을 수천 페이지 분량으로 썼고, “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것이 제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단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배웠고,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어린 시절에 “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청소년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년이 되어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음이 여러분에게 선택 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며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그 놀라운 진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 베드로와의 특별한 친밀함: 낚시와 경주 [54:57-57:58]

베드로와 제자, 그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21장 7절,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그가 자신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그는 주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가 ‘그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고, 그는 벗어던진 겹옷을 몸에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따라갔습니다.”

물고기는 몇 마리? 153마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부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아는 어부는 누구입니까? 저는 사도

요한이 베다니의 사막에서 온 내륙에 사는 사람인 나사로보다 더 잘

어울린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올리브 산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어부이므로 베드로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 이제, 이것도 훌륭한 것 중 하나인데, 20장 2절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노트에 넣었는지 봅시다. 성경

자체에서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 입구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자신을 밝히며 “그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고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둘 다 달리고

있었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 내가 이겼어, 내가 베드로를 이겼어. 그가 당신에게 다른 말을 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를 이겼어요. 내가 먼저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그를 이겼어요. 나는 그가 한 것보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가 이 말을 하고 “그는 몸을 굽혀 거기에 놓인 아마포를 보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의 뒤에 있던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에 놓인 아마포와 수다리움인 수의, 예수의 머리를 감싼 수의를 보았는데 , 그 천이 저절로 접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내가 먼저 거기에 도착했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세요. 또한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U.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최후의 만찬과 겿세마네 [57:58-61:11]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세계의 위대한 그림 중 일부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제자에게 예수가 누구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봐, 예수께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보통 수줍어합니까? 베드로는 보통 수줍어하지 않지만, 이 시점에서 그는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에게 가서 “이봐, 예수께 그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보다 예수와 더 가까워 보이는 이 제자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를 거쳐 예수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명의 위대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변형에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일찍 죽었습니다. 존은 사실 아주 오래 산다는 걸 알죠. 존은 90년대까지, 아마도 요한 계시록을 쓸 때인 기원후 98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형에 있었어요. 죽은 소녀가 있는데, 예수는 열두 제자 중 한 명인데, 그는 이 소녀를 고치기 위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어요.

예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곳으로 예수와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쪽의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아름다운 진술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그의 몸에서 타르가 두들겨졌습니다. 그는 채찍질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19장 26

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잔인하고 사악한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혀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가지고 있고, 그의 어머니는 여기 있고,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는 가까이 서 있고,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는 이 책을 쓴 사람이며,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 ‘ 사랑하는 여인이여,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 여기 당신의 어머니이십니다.’ ”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기 직전에, 그의 어머니를 돌보며 “ 어머니, 이제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 너는 지금 내 어머니를 돌봐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내 어머니를 돌볼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제자, 네가 내 어머니를 대신 돌봐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것이고, 그가 신뢰하는 이 제자, 그리고 그가 특별히 그의 어머니를 돌보도록 신뢰하는 이 제자는 이 제자에 대한 그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V. 복음서 이후 베드로와의 친밀함 [61:11-64:15]

베드로와 요한의 가까운 교제는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변형, 겟세마네, 죽은 소녀를 고치신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는 방금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후반부에는 사도행전 3장에 불구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불구자를 고치신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 사마리아인을 고치신 것은 8장 14절, 또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산헤드린 앞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친밀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실제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저는 헛트 박사가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교회의 기둥으로 묶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서의 저자는 자신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그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인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 피를 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인생을 살아가세요. 인생의 모든 혼란 속에서, 모든 거부, 모든 실패, 인생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뀝니다. 세상은 더 이상 혼돈과 우울증, 온갖 추악한 것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이 신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뀝니다. 이것은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십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Jessica Rabe 가 필사 함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